

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2월 11일(둘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		인도: 김성진 집사
찬양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찬송	주님의 시간에(623장)	다 함께
*교독문	68번	다 함께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461장)	다 함께
기도		함께 기도
찬송	고요한 바다로(373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그리스도인 4: 주님과 막힘 없는 교제의 은총(요일 1장 5-10절)		
*찬송	양떼를 떠나서(277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금주 입을 성경: 시편 119(49-160절까지 매일 16절씩), 사무엘 하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묵상

좁은 길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롬 14: 7).

지혜로우신 그분이 그리고 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날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그가 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자고 하신다면 이제 난 갈 것입니다.

새로이 많은 말 다 접어두고 내 생각 다 싸서 멍쳐 곁에 두고서라도 정말 단순한 그의 양, 그의 사람으로 그가 부르시는 그 좁은 길 가고자 할 것입니다.

내 가는 그 길가에 나와는 전혀 달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나의 이 길만 잠잠히 갈 것입니다. 내가 가는 창공에 수많은 각종 새들이 제각기 자기의 길들을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어떤 새는 물가로, 그 어떤 새는 한적한 들로, 그 어떤 새는 깊은 산곡으로, 그 어떤 새는 인가로...

그렇지만 나의 유일한 님 비둘기만 따라서 날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창공에 나의 님이신 그 비둘기 없으면 난 내내 그 구슬픈 소리 그칠 길 없습니다. 내 맘대로 날 수 있는 거기에 나의 기쁨은 이젠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각과 마음의 하늘은 넓습니다.

하지만 내가 참으로 날아갈 길로는 나의 님만 따르는 그 좁은 길뿐입니다. 날이 밝아오든, 뜨거운 정오든, 해 저무는 석양이든, 아니면 정말 캄캄한 밤이든 관계없습니다.

오직 나의 님 된 그 비둘기와만 함께라면 나는 그 곁에서 가까이 날고, 쉬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내 평생 그 곁에만 있기를 작정하면서 오늘도 뜻있게 그만 따르는 이 좁은 길을 착실히 날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가지

김상수

차디찬 가지 위에 내려앉은
하얀 눈송이
별거벗은 가지에
하늘이 입혀 준
따스한 털옷처럼

당신의 사랑은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조용하고
이슬처럼 정결합니다.

또다시 바람이 일고
햇빛 쬐이면
벗기어 드러나는
연약한 가지라서

나를 벗고 당신을 입고자
나는 죽고 당신으로 살고자

기다림의 긴 추위도 딛고
살을 에는 매선 바람도 견디며
뿌리 깊은 나무에 매이길
애쓰는 가지입니다.

그분의 양

이반석

오늘도 한 마리 양이 되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 봅니다.
목자가 정해진 영역에 머무를 때
그곳은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울타리 저 너머를 바라볼 때는
아득하고 어지럽고
자꾸 내가 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꾸
스스로 다녀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라고,
너도 목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잘 압니다.
내가 목자일 때
내 길이 어떠할지를 말입니다.
세상의 자유와 편안함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비할 바 없죠.

나는 먼 곳,
세상은 바라보길 원치 않습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목자를 바라보고
같이 목자를 따라가는 형제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2018년 2월 11일(6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ui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